

# 國民價值意識의 變化와 展望

李 滿 基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 〈目 次〉

1. 국민가치의식의 분석범위
  - (1) 가치관과 의식구조의 분석
2.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과 가치관
  - (1) 한국에 대한 두개의 평가
  - (2) 실학사상과 자본주의 정신
  - (3) 현대 산업사회와 사회의식구조와의 갈등

## 1. 國民價值意識의 分析範圍

### (1) 價值觀과 意識構造의 分析

막스. 웨버(Max Weber)는 슈몰러(G. Schumoller)와의 논쟁에서 「價值判斷의 배제」(Werturteilungsfreiheit)를 말했다(Weber, 1904). 이는 경제정책을 논함에 있어 객관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또는 권고라 할 수 있으며, 당시 社會政策을 주장한 슈몰러와, 社會主義의 뿌리가 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논쟁이었고,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政策科學의 형성, 또는 社會科學方法論으로서의 효시가 되었다 할만큼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후 마르크스주의를 각색 또는 변형하여 레닌과 스탈린이 만든 社會主義國家가 그후에도 많은 변화는 있었으나 계속해서 資本主義와 民主主義體制에 도전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價值判斷의 배격이 社會科學方法論으로써는 크게 공헌했으나, 현실에 있어서 주관적인 價值觀을 배격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價值觀은 價值判斷과 다르다고 할 수도 있으나, 결국 價值觀의 표시, 또는 서로 다른 價值觀에 대한 평가는 가치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가치판단을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막스·웨버 자신도 「프로테스탄트의 倫理

와 資本主義精神」이라는 저서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改新教의 가치관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가치관이 현실적으로 중요함을 인정한 셈이다. 올바른 價值觀의 確立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만 社會科學의 方法論으로서 일체의 가치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무엇이 올바른 價值觀인가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價值觀의 이야기는 哲學이나 倫理에 속하므로 社會科學의 이름으로 논의하기보다 哲學이나 倫理의 이름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經濟學을 공부한 사람이 이 문제를 결론짓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식구조나 가치관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經濟發展과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의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는 말과 같이 현실의 가치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자칫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部分的集團의 주장을 대변하는 결과로 그릇 유도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으로써가 아니라, 하나의 事例로써 의식구조나 가치관을 지적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예로써 어떤 계주가 속칭 달동네라고 하는 서민들이 사는 봉천동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3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거두어 잠적을 감추었다는 기사를 최근(9월 28일) 조간에서 읽었다.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의 하나의 관습과 어떤 의미에서는 그릇된 가치관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종종 있었고, 신문에 나지 않는 작은 사건은 더욱 많을 것이다.

계는 經濟行態에 있어서의 하나의 관행인 동시에, 짧은 시간에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이자)을 바라는 어리석음이 범죄자에게 이용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좋은 사례는 아니나 예로써 지적한다.

한편 이 논문의 목적에 꼭 일치되지는 않으나,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나타난 응답에 의해 한국사람의 생각, 또는 의식구조를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分析方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준비과정이 짧아서 그러한 조사내용을 모두 찾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신문에 보도된 것을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한다.

## (2) 意識構造의 變化에 대한 分析

지금 우리 국민은 意識構造의 커다란 변화와, 그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어떤 집단에 있어서나 그 구성원들의 意識構造가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강력한 차이를 갖게 될 때에 갈등을 갖게 되는데 대체로 그 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年齡階層에 따라 경험한 환경의 변화와 격차가 너무 컸다. 20세기를 보내면서 우리 국민은 舊韓末에서 日帝 해방과 분단, 6.25동란, 그리고 제5공화국이 이르기까지의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價値觀의 변화와 혼란을 겪어야 했다. 抗日鬪爭에서 희생된 사람, 2次大戰 때에 징용되었던 사람, 日帝에 아부하여 편하게 지낸 親日派라는 사람이 해방을 맞이하여 갈등을 빚었고, 분단의 비극이 南·北韓의 대결과 6.25동란을 통해 反共포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가치관의 갈등을 경험했다. 그리고 제5공화국이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혁명을 통해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둘째로 급격한 經濟發展이 생활환경을 너무나 크게 변화시켰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物質文明의 洪水속에 이에 대비할만한 價値觀을 형성시킬 겨를이 없었고, 이것은 허다한 혼란을 이르키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과거 先進國이 100년 또는 200년 거쳐서 이루한 工業化를 우리는 10년 또는 20년의 짧은 시간에 이루하였다. 西歐의 資本主義는 100년이상의 시간을 통해 여러 代를 거치면서 이루되었는데 우리는 10년내지 20년의 當代에 이루하였기 때문에 前資本主義의 封建的思考와 產業社會의 급속한 변화가 共存하고 있는 것이다.

西歐에 있어서 웨버와의 價値判斷論爭이 있었던 시기가 產業社會의 형성직후이었으며, 그들은 우리보다 오랜시간을 두고 이루한 產業社會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價値觀에 있어 혼란을 겪어야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당시 상·시몽(Saint-Simon)은 產業의 價値觀과 封建의 價値觀의 共存하는 당시의 社會를 거꾸로 서있는 世界(monde renversé)라고 말하였다. 흔히 頽倒된 世界라고 말하기도하는 두개의相反된 價値觀이 봉건주의와 함께 존재하는 資本主義의 형성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資本主義의 精神的基盤이 없이, 아직도 封建主義의 정신적 기반위에 資本主義社會를 급속히 건설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우기 資本主義精神이 우리의 생활기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北韓을 비롯한 中共, 소련 등 社會主義國家와 인접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나라는 사상과 체제가 서로 달라도 東西交流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직 우리나라만이 가장 강한 制限을 받고 그만큼 社會主義의 강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6.25동란이 反共意識을 굳게 하였음은 사실이나 이제는 6.25 이후의 世代가 더욱 많은 社會構成員으로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6.25세대가 反共의 의식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資本主義의 價值觀을 뚜렷하게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產業社會에 대한 精神的인 空白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이다.

封建主義의 정신적 基盤위에 형성된 資本主義의 產業社會가 갖는 갈등은 價值觀과 現實의 대립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封建主義의 정신적 기반이 무력하기 때문에 不安定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封建主義는 產業社會의 앞에서 무력하게 물러나게 되므로 그 정신적 기반도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매워야하는데 여기에 資本主義精神을 확립하지 못하고, 타락된 物質主義가 먼저 자리를 잡거나, 社會主義의 환상이 차지하게 될때에 갈등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겠다. 拜金思想 한탕주의, 사치와 허영으로 타락한 物質主義라 할 수 있고, 강력한 대립과 투쟁을 뒷바침하는 黑白論理가 社會主義의 환상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2 韓國社會의 近代化過程과 價值觀

### (1) 韓國에 대한 두개의 評價

최근 한 日刊經濟紙는 「難局를 이기는 슬기」라는 특집 연속기사의 서두에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難局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을 시작했다.

韓國의 經濟社會의 각 부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된 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했을 것이다.

불과 20여년의 工業化로 新進工業國이 된 韓國은 이제 先進工業國을 눈 앞에 바라보면서 그대로 주저앉은 다른 開發國의 대열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先進工業國을 향해 전진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잠시 뒤로 미루고 1980년 토리드만(Milton and Rose Friedman)이 그의 저서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에서의 다음의 표현을 들어 본다. 「극동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대만, 홍콩 그리고 日本은 잘 번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희망에 가득차 있다. 이들의 1人當 GNP는 70년대 후기에 약 700달러인 말레이시아로부터 약 5,000달러인 日本에 이르기까지의 수준에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中共 등과 같이 강력한 中央計劃에 의존하는 나라는 1人當 GNP가 250달러도 못되는 수준에 있다」(Milton and Rose Friedman, 1980 : 57).

韓國經濟가 최근 다른 여러 부문과 함께 어려움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그것은 모두가 工業化, 또는 產業社會를 이룩한 뒤에 찾아온 難題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難題가 한편으로 對內外經濟의 환경에 의존될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같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그 經濟發展의 기반(여건)이 되어야 할 국민의 의식구조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미국의 한 권위있는 기관 (The Environment Fund, 환경재단)에 의하면 세계의 148개 국가 중 선진국 24개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은 25개국이며 우리나라보다 살기가 나쁜 나라가 98개국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살기 좋다는 기준은 객관적으로 비교가능한 물량적인 여러 지표들, 예컨대 국민소득, 경제생활수준, 문맹률, 유아사망률, 평균수명 등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지표들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얼마전 日本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에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임을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물질적인 만족보다도 생활에 대한 정신적인 만족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社會意識構造의 조사가 전문기관에 의해 시도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찾아보았다.

표본집단이 작을지 모르나 모집단도 크지 않으므로 그 정도로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남여 100명이 보는 한국인에 대한 평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이 한국사회의 장점으로 보는 것은 ① 가족제도 ② 경제사정 ③ 정치안정 등이었고 短點으로는 ① 교통질서의 부재 ② 환경오염 ③ 도시계획의 빙곤 ④ 남존여비 ⑤ 언론부재 ⑥ 상도

의 부재 ⑦ 전쟁위험 등이었다고 한다.

또한 韓國人의 長點으로 지적한 것은 ① 친절(외국인에 대해) ② 근면성 ③ 성실성 ④ 명랑하고 外性的임 ⑤ 민족주의(애국심) ⑥ 단정한 외모 등이고, 短點으로는 ① 공중도의심 부족 ② 참을성이 없음 ③ 이기주의 ④ 너무 감정적이고 화를 잘냄 ⑤ 외제선호 ⑥ 좁은 소견 ⑦ 시간약속 지체 ⑧ 서둘러서 얼렁뚱땅 해치움 ⑨ 불우이웃에 대한 무관심 등이다.

위의 평가는 상대적인 것이며, 예를들어 지난번 來韓했던 아이아 코카는 한국인이 끈기가 있고 참을성이 있다고 했는데 위의 여론에서는 참을성이 없다는 것이 제2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표현상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인의 持久力은 인내력으로써 높이 평가받을 수 있으나 성급함 때문에 참을성이 없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구조에 대해서나 특히 韓國人의 의식구조에 대한 평가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같겠지만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의식은 인간들의 정신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따라서 스키너(B. F. Skinner)와 같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는 人間의 의식세계의 연구는 科學의 대상에서 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社會科學方法論爭을 하였던 막스·웨버와 같은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는 견해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價值判斷을 배격한 웨버가 기독교와 資本主義精神과의 관계를 논했듯이 社會意識의 문제 가 엄격히 따질때 科學의 영역에 있지 않다고 해서 이에 대한 연구를 비과학적이라고 몰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3월 한국일보에 연재된 社會意識에 관한 金東一 교수의 글에 의하면 우리의 社會가 지난 20년간 급속히 변화되었으나 의식구조는 아직도 과거의 전통적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의 근대화과정에서 빠른 템포의 경제발전과 물량적 성장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이에 부응하는 의식구조상의 변화는 더뎠고 그 결과 (사회)구조적으로는 產業社會, 都市中心社會로 접어들었으나 정신적으로는 전통적인 사회의식과 도시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의식의 틈바구니에서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되었다」(팔호는 필자첨가)고 결론지를 뿐 아니라, 특히 外國文化의 도입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더구나 傳統農耕社會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는 노력은 西歐社會의 멎을 物心兩面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

이기 시작했고 이것은 민족의 傳統的價值와 規範意識의 爭斗를 초래하면서 行動基準이 불확실한 상황에 빠지게 했다」(金東一 1985: 21~22)라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經濟發展이 가져온 社會構造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國民意識구조의 적응의 격차의 문제와, 한편 開放社會에서 經濟發展을 위해 도입한 西歐文化와 우리의 傳統文化와의 갈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行動基準, 또는 意識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社會意識구조의 조사결과의 예는 잠시 뒤로 미루고, 우리가 資本主義經濟體制를 도입하면서 그 정신질서는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西歐資本主義는 그 정신적기관과 관련해 볼 때 ①勤勉과 節制에 입각한 國民的 富의 축적 ②合理主義에 입각한 企業家精神 ③ 實用主義에 입각한 생활태도와 직업관을 들 수 있다.

어떤 의미로는 유럽의 위와 같은 資本主義精神은 「잘 살아야 한다」는데 두었고, 특히 成長主義를 발전의 가치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최근까지의 東洋社會에 있어서나, 資本主義이전의 유럽사회를 포함하여 모든 非資本主義의 사회에 있어서는 「잘 산다」는 기준을 成長과 發展보다도 分配에 두고 있으며, 그것을 未來指向보다 過去와 現在를 중요시하는 여러 가지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古代의 그리스哲學, 中世紀에 이르기까지의 天主教, 東洋의 儒教와 佛教, 오늘의 제3세계와 社會主義에 이르기까지 「잘 산다」는 價值觀기준에 있어 成長보다 分配가 설득력이 더욱 큰 것 같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하여 「잘 살아야 한다」는 價值基準을 成長과 發展에 두고 있는 成長主義는 유럽 사회에서 宗教改革, 文藝復興등의 정신문화의 变혁과 地理上의 發見이라고 말하는 科學技術의 발달을 기반으로 형성된 資本主義에서 비로소 채택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民族主義에 입각한 重商主義와 종교개혁자 루터의 職業觀과 칼빈의 禁欲主義의 정신적 기반위에, 실천할 수 있었던 근면과 절제로 民族資本을 축적하였으며 (Weber) 여기에 合理主義에 입각한 企業이 형성되고 科學技術의 발달에 의한 產業革命이 마침내 高度成長으로 資本主義의 社會를 실현시키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社會構造의 변화와 社會構成員의 意識구조가 다같이 資本主義의 先進國社會를 실현시키는 힘이 되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유럽人們은 이와같은 資本主義를 東洋에도 전파하려했으나 20세기 이전에는 日本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1960년대에 비로소 成長主義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그 정신적 기반에 있어 과거의 非成長主義와의 갈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84년 東亞日報 正初특집에서 라이샤워교수는 韓國과 日本의 社會構造 또는 文化構造(의식구조)의 차이가 큰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표현과 동시에 두가지의 이유를 들었다.

「흔히 韓國은 日本의 발자취를 뒤따르고 있다거나, 日本의 기적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이러한 말들은 두 가지의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왜 日本을 뒤따르는 것이 泰國이나 방글라데시 또는 이집트나 페루가 아니고 하필 이면 韓國이 하는 점이다. 둘째는 왜 1,400년전 日本이 韓國의 발자취를 뒤쫓는 것과는 반대로 이제와서 韓國이 日本을 뒤쫓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韓國과 日本이 여러 공통점이 있으나 결국 成長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西歐의 文明에 대해 韩國이 日本보다 훨씬 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도 역시 첫째의 질문에 대해 韩國과 日本이 共通點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韩國과 日本이 다 같이 ① 강한 근로정신 ② 가족과 공동체에 의한 굳건한 社會意識 ③ 강한 國家意識 ④ 정규교육에 대한 높은 價值觀과 努力 등에 있어 서로 같다라는 점이다.

그런데 韩國이 과거에 앞서가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日本을 뒤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歷史的으로 강력한 儒教思想의 지배와 中央集權의 폐해에 기인되었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가 여기서 들고 있는 두 가지의 이유가 결국 成長主義(또는 資本主義構神)를 거부하는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의견에 찬성한다.

「한마디로 말해 儒教社會의 어떤 특징들은 經濟社會에 매우 유용하지만, 너무 철저히 유교화된 사회는 오히려 그 반대의 특징을 갖게 된다」고 하였는데 정신적 질서의 통일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면에 변화를 거부하고 安定된 社會를 추구하기 위해 成長과 發展을 막으려는 것이 반대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이전의 韩國은 中國보다도 오히려 철저히 유교화했기 때문에 經濟成長面에서는 中國이나 日本보다 뒤쳤던 것이다」

(라이샤워, 1984)라고 말하였다.

또한 라이샤워 교수의 지적과 같이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이후 中央集權의 君主國家가 계속되었으나, 日本은 明治維新이 있기 전까지 地方分權의 領主가 지배하는 정치체제이었기 때문에 發展指向의 社會風土를 조성하여 왔고, 그것이 유럽의 成長主義를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日本의 明治維新이 유럽의 近代化와 같은 成長主義의 出發點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마치고,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60년대의 제3공화국에 이르러 비로소 成長主義를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지적하겠다. 그러나 비록 늦기는 했으나 우리나라가 成長主義를 채택하고 產業社會를 형성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成長主義는 그 정신적 기반에 있어서 아직도 확고하다고 말할 수 없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직도 오랫동안의 傳統的價値觀을 몰아낼 만큼 成長主義의 價値觀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으나, 잠시 뒤에 社會意識조사를 예를 들면서 다시 검토하고 여기서는 과거 우리의 先人們의 중요한 成長主義思想을 소개하고 이것이 왜 社會意識構造로써 자리잡지를 못하였는가에 대해 고찰하겠다.

## (2) 實學思想과 資本主義精神

韓國에서도 成長主義의 經濟思想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李朝後期에 꽂을 피웠던 實學思想은 여러가지의 측면에서 유럽의 成長主義의 資本主義精神과 공통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동안 儒教에 기반을 둔 傳統的인 政治哲學과 國民의 意識構造가 천박한 物質主義나 成長主義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結實을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당시에는 農耕社會가 지배되고 있는 社會構造에서 이보다 앞선 產業社會에의 의식구조를 심는 다른 것을 상상 할 수 없었을 것이다.

李朝後期에 있었던 實學思想은 「實事求是의 學問」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최근 中共이 鄧小平과 그 追從者들에 대해 實學思想의 背景을 적용시키려하는데 나는 이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 (金東雲1985). 만일 實學이 中國에서 유래된 것이라면, 우선 李朝後期에 추구했던 實學의 理念 그자체에 상충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朝鮮後期의 實學은 첫째로 前近代意識에 대립되는 近代意識과 둘째로 反民族意識에 대립되는 民族意識」을 주장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民族意識을 갖는다면 中國의 것을 따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星湖이후의 後期實學이 民族意識을 주장한 것은, 당시의 儒學이 갖는 事大主義의 慕華思想을 배격하는데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李朝의 實學思想이 설사 中國의 것과 같다고 해도 우리의 독자적인 것임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實事求是의 근본정신은 自我의 再確立에 있으며 그것을 自主性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實事求是는 近代指向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經濟發展을 중요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實學은 空理空論의 朱子學의 儒教思想에 대한 反動으로 생겼으며 현실적으로 社會再建과 經濟發展을 추구하였던 것이다(千寬宇1970: 967). 이러한 점에서 實學은 유럽의 成長主義와 유사한 것이 있으며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 技術革新, 產業開發, 節儉論, 經濟效用論 등 유럽의 經濟思想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民主義에 입각한 產業發展과 社會改革을 주장하였다. 李朝의 傳統의 經濟思想에서는 農業만이 중요한 生產業이었고 工業과 商業은 무시되어왔는데, 實學派學者들은 農業뿐아니라 工業과 商業을 중요한 產業으로 생각하였다. 土, 農, 工, 商이라는 四民思想에 나타났던 身分의 差別과 職業의 差別을 배격하고 商工業을 중요시하였으며 平等한 職業觀을 부여한 것이 近代指向의 思想을 기초로 나타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國民主義에 입각하여 產業發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유럽의 重商主義나 歷史學派와 같이 國家나 國民經濟의 발전을 목표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특히 朴齊家는 다음과 같이 貿易開放論을 주장한 것이 주목된다. 「지금 織布를 입고 白紙에 글을 써도 物資가 不足하지만 배로 貿易을 하면 비단을 입고 竹紙에 글을 써도 物資가 남아 돌아갈 것이다」라고 貿易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당시 日本의 經濟發展이 貿易에 힘입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날 倭國(日本)이 中國과 貿易을 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교섭하여 燕京실을 사갔으므로 우리가 居間(仲介)하여 利益을 보았는데 지금은 倭國이 직접 中國과 통할뿐아니라 그 밖에도 30余國과 貿易을 하고 있다」(朴齊家, 北學儀, 通江南浙江商船)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朴齊家는 貿易을 위해서는 輸出產業을 육성하여 外貨를 벌어야 함을 力說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數萬兩의 銀

을 中國에 輸出하여 藥材와 주단따위를 貿易(輸入) 한다. 그런데 저쪽 銀을 우리나라 물건을 주고 바꿔오는 것은 없다. 銀은 千年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물건이다. 그러나 藥은 반나절이면 소화되고 비단은 사람을 장사지낼 때 쓰면 반년에 썩는다. 千年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物件을 반나절, 반년에 없어지는 물건과 바꾸어 限定된 山川의 資源을 둘보지 않고, 内보내면 돌아오지 않는 地域에 輸出하니 점점 더 귀해질 수 밖에 없다」(朴齊家, 北學儀, 內編). 이는 유럽의 重商主義와 같은 생각이며 현대에는 輸出產業육성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實學思想은 資本을 축적하여 合理的인 企業을 경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柳壽垣의 迂書에 의하면 「우리나라 商業을 보면 말은 있으나 노새가 없고, 배는 있으나 수레가 없어서 船商보다는 馬商이 많고 馬商보다는 負商이 많다. 혼자서 장사할 줄은 알아도 資本을 모아 힘을 합하는 것이 얼마나 利益이 큰가를 알지 못한다」(柳壽垣, 迂書 : 1073)라고 하여 個人이 하는 小商人보다 資本을合作하여 大商人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좀바르트(W. Sombart)는 「資本主義의 經濟體制는 資本的企業」(Sombart, Wirtschaftsgeschichte : 238)을 기초로 한다고 하였는데, 柳壽垣은 바로 資本的企業의 필요성을 力說하였던 것이다. 그의 말을 현대의 경제용어로 다시 정리하면, 商業을 잘 해서 돈을 벌기 위하여는 그 규모가 커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負 짐 장사(負商)보다는 馬車로 운반하는 馬商이, 馬商보다는 船商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大商人이 되려면 個人보다는 國體企業(株式會社)을 조직해서 資本을 많이 동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세째로 實學派는 경제발전을 위해 技術革新을 주장하였다. 丁若鏞은 「농사하는 技術이 정교하면 차지하는 땅은 적어도 穀食配出이 많으며, 베짜는 기술이 정교하면 드는 물자가 적어도 실이 많이나며 올이 배고 결이 좋을 것이다」(丁若鏞)라고 技術이 生產性을 向上시켜 量이 많고 質이 좋은 生產物을 생산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설명을 하였다.

위와같이 實學思想은 經濟發展을 위한 사상과 이론이며, 특히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내용들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당시의 李朝社會에서 받아들여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李朝時代의 社會的基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라이샤워가 한국과 日本의 社會的基盤의 차이점에 대해 中央集權과 地方分權을 지적하였듯이, 李氏王朝시대에는 모든 權力이 中央에

집중되고 地方에는 감히 이에 맞설수 있는 權力層이 없었다. 또한 身分의 差別도 더욱 철저하여 兩班이 아닌 사람이 貴族계급인 兩班이 되는 데에는 日本이나 中國보다 더욱 엄격한 制約을 받았다. 또한 中國에서는 원칙적으로 세 등급의 科學에 모두 합격하면 官僚體制의 최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었으나 韓國에서는 처음부터 兩班이라야 科學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身分의 差別과 피라밀型 權力構造의 유지를 위해서는 忠과 孝를 가장 큰 德目으로 강조하는 儒敎가 政治哲學으로 으뜸가는 것이며, 經濟發展을 위한 商工業者는 배제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商工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實學思想이 받아드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이 유럽과 다른 점이다. 유럽의 絶對主義國家시대에는 國力を 증진시키기 위한 國富가 필요하여 정치인인 商人을 지원했고 또한 商人이 정치인을 필요로하여 重商主義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수중에 자금이 없고 國力의 발전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商工業의 발전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對外貿易은 李祖의 거의 전기간동안 정부가 직접 朝貢貿易의 형태로 행해졌으며 1866년과 1871년 프랑스와 미국의 개항요구를 武力으로 대항하며 쇄국정책을 쓰다가 1876년에 드디어 問戶를開放했을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던 것이다.

日本은 이미 오래전에 유럽의 성장주의를 받아들여 明治維新이라는 정치경제의 개혁을 통해 단시일에 西歐式帝國主義强大國으로 성장한 뒤이었기 때문이다. 韓國은 問戶開放 24년 뒤에 20세기를 맞이했으나 1905년 실질적으로 日本의 植民地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오늘날의 대다수 開途國은 植民列強들이 잡다한 部族과 土候國을併合하여 세운 나라(예컨대, 나이지리아, 인도, 인도네시아)이거나, 아니면 스페인과 포르트갈의 植民政策에 의해 세워진 나라(中南美)인데 반해, 韓國은 독자적으로 7世紀에 新羅王朝에 의해 統一國家를 형성한 이후 잠시의 동고의 침공기간과 20세기에 와서 日本이 國力으로 지배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韓國人 자신이 통치해온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다(메이슨, 김만제 3人공저 1981 : 84) 말하자면 韓國人은 單一言語와 單一文化를 가진 單一民族인 것이다.

## (3) 現代 產業社會와 社會意識 構造와의 갈등

單一民族으로써 統一國家를 형성한 이후에만 1,200여년의 오랜 歷史를 이어온 韓國人의 의식구조는 農耕社會와 中央集權的君主國家에 의한 傳統的思想에 의해 지배되었다. 여기에 中國의 儒教思想이 본래의 白上地인 中國대륙보다 더욱 철저하게 지배하였다고 앞에 소개한 라이샤워는 말했다. 그는 「韓國은 中國보다 훨씬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유교이념이 더욱 철저히, 더욱 보편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다」고 말하였으나, 그보다도 韓國이 농경사회인데다가 순박한 국민성이 유교적인 사상을 포함한 사상과 종교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해야 한다. 日本은 한국보다 면적이나 인구가 다 같이 3배의 크기이며 中國에 비하면 韓國이나 日本이 다 같이 적은 나라인데 日本이 철저하게 非儒敎의이었음은 국민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인은 오랜 농경사회에서 순박한 성품을 갖게 되어, 사상과 종교를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은 2차대전 후에 잘 나타난다. 불행히 南北이 兩端되어 한쪽에는 공산주의와 한쪽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적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北韓이 가장 강력한 共產主義를 적용해 온 것은 억압된 사회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될수 없으나, 자유주의의 南韓社會에서는 40년동안 기독교도와 新舊敎를 합하여, 7백만명으로 동양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되었으며 종래의 佛敎도 절대적으로는 상당히 성장되었다. 改新敎는 100년, 舊敎는 200년의 역사를 기록했으나 실제로 급속히 성장된 것은 해방후이며, 日帝의 전시 탄압때는 성장이 어려웠던 까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방후 40년동안 기독교를 비롯하여 다른 종교들도 많이 발달한 것이 日本의 경우와 크게 다르며, 이는 韓國人의 국민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日本人은 明治유신이라는 對外開放이후 宗敎보다는 物質文明을 받아들이는데에는 대단히 빨랐으며, 2차대전의 敗戰後에도 그것을 如實히 보여주었다. 韓國人은 급속한 기독교의 발전과, 불교, 유교의 계승과, 단군신화에서 비롯하여 多神敎의 샤마니즘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종교심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日本人은 오직 神道라는 軍國主義의 國敎외에는 그다지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共產國을 제외하고는 無宗教인이 가장 많은 국민일련지도 모른다.

그러나 韓國社會는 해방이후, 여러가지의 價値觀의 변화에 봉착해야 했다.

아직까지 한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社會制度가 도입되어야 했다. 정치에 있어서 民主主義, 경제에 있어서 資本主義, 종교에 있어서 基督教,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 위의 세 가지를 바탕으로한 西歐文化의 도입 등 모두가 새로운 것을 우리의 傳統文化와 더불어 발전시켜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西歐의 文化的 깊은 뿌리를 우리가 모두 이해하고 그중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완전하게 이식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고, 결국 겉으로만 도입하기가 일쑤였다.

三權이 分立된 정부가 民主主義이며, 企業主와 근로자로 조직된 企業의 발전이 資本主義이며, 성당이나 교회의 건물과 教徒가 모인 것이 기독교이며, 미국의 各級學校의 學年制를 따른 것이 미국식교육이라는 생각은 크게 잘못이다.

참된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국가이며, 참된 자본주의는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經濟制度의 운영이며, 참된 기독교는十字架를 지기까지 하면서 人類를 죄에서 구원한 그리스도를 믿는데 있으며, 참된 미국식교육은 人間社會의 안내자가 될 수 있는 人格과 산업社会의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專門的인 能力を 기르는데 있다는 사실을 잊고, 外形만을 도입하여 量產하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쨌던 형식적이나마, 西歐文化의 도입은 韓國人的 오랫동안의 傳統文化와 思想을 혼들어 놓았으며, 共存의 길을 찾아야 하는 숙제와 함께 價值觀에 있어서의 갈등을 초래했으며, 새로운 조화를 위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앞에서 한국의 社會構造와 한국인의 長短點에 대한 外國人的 평가를 소개했는데, 여기서 설문조사에 나타난 韓國人 스스로의 평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사회에서는 성실한 사람보다 수단이 좋은 사람이 出世한다는 질문에 찬성이 1981년에 62%, 82년에 65%로써 압도적일뿐 아니라, 前年보다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李朝시대에 이미 科舉制度를 통해 주로 儒教哲學을 바탕으로 하는 道德政治를 표방하면서도 農耕社會에서 농업이외에는 官僚만이 出世의 길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官僚主義가 강력하게 발달되어왔고 더우기 實學者 朴齊家가 지적한 바와 같이 土, 農, 工, 商의 四民思想이 官僚主義를 뒤받침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경향은 현대의 產業社會에 있어서도 평범한 근로자와 전문기술자

보다 考試에 의해 官에 立身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알게 하였고, 최근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高位官職에 이를 수 있으면 이를 선택하려하는 그릇된 의식구조를 조성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틴·루터의 職業觀과 같이 모든 직업이 다같이 召命을 받았다는 의식이 결핍되었으며, 미국의 實用主義보다는 李朝의 權威主義가 아직도 작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는 위의 설문자체가 우리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 「성실」한 것과 「수단이 좋은것」은 엄격히 말해서 같은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수단이 악하면 옳지 않으며, 수단이 선한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德目이며, 그것이 곧 성실한 것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수단이 좋다」는 개념은 수단이 선한 것이 아니고 수단이 악한 것도 서슴치 않고 선택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질문자도 답변자도 결국 수단이 좋다는 것은 성실하지 않은 것, 즉 수단이 나쁜 것도 선택한다는 뜻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둘째로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1981년에 52%, 82년에 48%로 아직도 그렇지 않다는 생각(43%, 45%)보다 많으나 차츰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돈의 위력이 경제성장의 결과 다소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나 아직도 가장 강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세째로 法과 秩序에 대한 여러 질문에는 대체로 否定 또는 不信의 답변이었다. 「권력이 있으면 법을 어기고도 버젓이 산다」는 현실을 57%와 61%가 인정했고, 「억울할 때 法에 호소하면 해결된다는 테 대한 不信이 43%에서 52%로 늘고 있으나, 다만 法대로 하면 손해본다는, 극단적인 不信은 32%와 31%로, 그렇지 않다는 信任이 51%에서 54%인것 보다는 적으나 不信風潮가 대단히 높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국민의 3할이 法대로 따르면 손해라고 法을 不信한다면 이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본다는 생각도 3분의 1이며, 일단 정해진 규칙이라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퍼고 있다. 이 정도면 法의식이나 秩序의식이 우리 국민에게 있어 얼마나 빈약한 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金東一교수의 평가는 옳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자가용 승용차의 번호에 따라 운행하지 않도록 권장할 때, 비록 귀찮아도,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나라가 필요해서 정한 질서라면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惡法도 法은 지켜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생각했었다. 金東一 교수는 이어서 어린이들에 비친 기성인의 질서의식을 조사한 자료를 소개했는데, 국민학교 5~6학년 100명의 어린이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첫째「우리나라 어른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에 「그렇다」가 7%이고 「그렇지 않다」가 79%로 압도적인否定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어른들보다 어린이가 질서를 잘 지킨다는 생각이 82%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볼 때만 질서를 지킨다는 생각이 67%이었으며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는 질서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에 「그렇지 않다」가 72%로 비교적 어린이의 질서의식은 바르다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급할 때는 어려도 된다에 42%, 어른이 안지킨니까 나도 안지킨다가 47%로써 어린이로 질서의식이 투철하지는 못하며, 특히 그것이 어른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같은 글에서 다른 나라들(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있어 시민의식과 공중도의의식의 교육을 가장 등한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시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소개하지 않겠으나, 그것은 父母들 자신이 공중도의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KBS가 전국 90개 지역의 만16~25세 청소년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식구조는 다음과 같다(한국인간개발원, 1985)

첫째,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로 「행복한 가정」이 51.1%, 직업인으로 그걸에 전념하는 것이 28.7%, 독립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22.4%, 부자가 되는 것이 7.6%, 높은 지위가 6.4%의 순서로 소개되었는데, 이글의 비율을 합하면 116.2%가 되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에 무엇인가 잘못이나 누락이 있을 것으로 보아 크게 참고할 가치가 없다고 보나, 다만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는데 대해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귀중한 가치관이라고 보면서, 한편 인류사회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가치관은 질문이 없기 때문인지 몰라도 아쉬움을 찾을 수 있다. 더우기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청소년이, 이 다음에 노인이 될 때 자식과 떨어져 살겠다는 사람이 10.9%이고, 함께 살겠다가 27.1%로, 현재 그들이 노인과의 동거를 원치 않고 점차 핵 가족화되어가는 의식구조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국민은 他人의 자질과 성품은 많은 장점이 있고, 세계의 어느나라 사람들보다 근면하며(주당 노동시간 52시간) 청소년까지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일단 자기자신과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文化市民으로써의 의무와 책임이 회박해지며, 법과 질서를 존

중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出世할 수 있다고 믿는 데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4) 產業社會의 發展과 意識構造의 變化方向

얼마전 신문에서 「미국식 교육 虛實을 본다」는 기획기사에서 다음의 글을 읽고 놀랐다. 미국에서 전국 PSAT시험에서 수위 2,500선에 들어 우수학생으로 뽑힌 데다가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1등하여 수퍼天才로 인정된 한국系의 제임스군이 하버드大學의 입학원서를 받아보고 하얗게 질렸는데 「여름방학 동안 여행은 얼마나 했으며, 무엇을 배웠는가,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곳의 지역사회봉사는 어떤 각오를 했는가, 최근에 읽은 소설 5권을 대고 그 소감을 쓰라...」지원서 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의 난의 넓은 공간을 메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며 결국 그 대학에 들어 가지 못하고 캘리포니아공과대학(CIT)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이다(한국일보, 1985. 10. 3). 미국의 大學은 人格과 知的能力의 두 가지를 소중히 하며 大學에 따라 어느 한 쪽에 치중할 수 있으나 두 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학이 많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우리의 교육은 學制에 있어서는 미국式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한국인이며 미국인이 아니므로 그 내용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科學과 知識과 經濟制度와 政治制度에 있어 西歐의 것을 도입하였다면 그 밑에 깔려있는 精神과 哲學과 文化的 背景을 모두를 도입은 못 해도 이해는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實用主義의인데 우리는 權威와 外華를 중요시하며 그들은 未來指向의인데 우리는 過去나 現在指向의이며, 이러한 근본적인 哲學과 精神的의 背景의 차이에 불구하고 그들의 정치나 경제제도나 교육제도를 겉으로만 도입한 데서 갈등이 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 릿치몬드에서 어떤 사람이 철면조를 사서 지나가는 허술한 차림의 사람에게 돈을 주고 집까지 운반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운반해 준 사람이 최고재판소의 장관급으로 막 임명받은 존·마샬(John Marshall)이었다고 하며,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한다. 현직의 장관급이면서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철면조를 운반하는 사람의 人格이 빈 것인가 꽤 찬것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는 집을 지어도, 옷을 입어도 겉

치례에 치중한다.

우리는 과거지향일 뿐아니라 현재지향이어서 빠른 出世와 빠른 치부를 위한 한탕주의가 성행하였다. 미국에 가서도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한다. 심지어 농업생산에도 한탕주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제발표를 읽었다(사회발전연구소, 1985). 한탕주의는 오늘만 살고 내일은 모르는 사상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 건강한 내일을 생각한다면 한탕주의 보다는 성실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5공화국은 韓國人의 價值觀의 목표로 「國民精神教育 9大德目」으로써 ①主人精神 ②名譽心 ③道德心 ④協同精神 ⑤使命感 ⑥遵法精神 ⑦愛國心 ⑧反共精神 ⑨統一意志를 내걸고 있다. 웬만한 직장마다 붓글씨로 크게 써서 벽에 걸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德目的 참 뜻을 알고 있을까?

儒教가 2천년이상 가르쳐온 三網과 五倫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 실천되었는가는 고사하고 기억조차하고 있는지 물어볼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욱 많을지 모르는 것과 같다.

9大德目에 대한 分析과 논평은 뒤로하고 그것이 韩國人의 價值觀으로 뿌리내리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한다.

主人精神, 그것은 모든 것을 내 것과 같이 소중하게 하자는 뜻이다. 내 나라, 내 사회, 내 가정, 내 물건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서로 잘못이 있다면 내 나라는 모든 국민이 함께 내 나라이어야 하므로 우리 나라인 것이다. 다 같이主人이 되는것, 共同으로 主인이 되는 정신이 필요하다.

여러 德目을 다 논의할 수 없으나 그것은 個人과 社會와 國家가 함께 생각해야 하며 歷史的共同體로써 살아가는데 필요한 價值觀이어야 한다. 미국의 청교도가 처음 대륙에 건너가서 먼저 교회를 짓고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自己의 住宅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먼저 利己的인 정신을 버리는 것과 未來지향적인 정신을 찾을 수 있다. 교회는 信仰인이 찾는 곳이며, 그들이 믿는 神은 「지극히 적은 者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利己心의 배격을 요구한다. 학교를 지은 것이 未來指向의 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民主主義와 資本主義라는 정치경제제도는 기본적으로 國民의 政治이며 國民經濟임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個人과 社會와 國家가 공동의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韩國의 民主主義와 資本主義가 반드시 西歐의 그것과 같지 않으며,

따라서 韓國的民主主義, 韓國的資本主義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여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民主主義와 資本主義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치가 국민을 위하고, 우리의 경제도 국민복지를 위하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資本主義의 本體과 그 精神을 受容하고 우리의 傳統的價値觀을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資本主義의 精神이나 價值意識의 發展정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전대 西歐의 資本主義國家의 價值觀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國民的 富의 측면에 力點을 두는 重商主義가 지배하였으나 產業革命을 계기로 市場機能에 맡기는 自由主義가 지배되었으며, 产业革命이 끝난뒤에는 失業의 방지와 分配의 재조정과 社會保障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力點을 두는 福祉主義에 의해 지배되고 있듯이 그 社會構造의 變화에 적응해온 것이다.

아직도 經濟發展을 성취하지 못한 나라들, 특히 제3세계의 나라들에게 그들의 進路를 資本主義(제1세계)와 社會主義(제2세계)의 그 어느 方向으로 선택하겠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資本主義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슴치 않고 그 비교의 기준을 어느 體制가 더 效果的인가에 두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Krauss, 1983 : 3).

여기서 資本主義의 가치관은 經濟的效率性에 두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經濟的 efficiency에 대해서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經濟的 efficiency이라는 것도 靜態的이고 不變하는 것이 아니고 動態的이고 變動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社會主義者들은 動態的인 辨證法을 주장하면서 靜態的인 黑白論理를 주장하는自家撞着을 드러내고 있다. 만일 우리도 어떠한 경우이던지 黑白論理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스스로自家撞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희랍시대의 哲學者에게서도 이러한 黑白論理에 빠지는 矛盾을 발견할 수 있다. 예로써 플라톤의 「饗宴」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도 그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의 哲人이 한자리에 모인 연회석에서 아카تون은 사랑은 최고의 美好, 善이요, 義라고 하는 모든 찬사를 동원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자기도 아카تون보다 좋은 찬사를 얼마인지 늘어놓을 수 있으나, 그보다도 우선 리

오티마에게 배운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하여, 그 질문은 결국 아카톤으로 하여금 결국은 사랑이 美도 善도 眞도 義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였다. 그러자 아카톤은 화를 내며 그러면 사랑이 추하고 악하고 거짓이고 불의한 것이냐고 하였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美와 醜, 善와 惡……의兩極의 하나도 아니고, 그 中間의 靜的狀態도 아니고 완전한 美가 아니므로 美를 추구하며, 善이 아니므로 善을……추구하는 動的인 努力이 곧 사랑이라고 정의하였다.

黑白논리에서는 黑과 白의 對立과, 그렇지 않으면 모두 기회주의로 생각하는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는 매우 不合理한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傳統的社會로 부터, 產業社會로의 变遷과정에서 어떻게 眞善美를 추구하여 價值觀이 变化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農業社會에서 產業社會로, 前資本主義에서 資本主義로 발전하면서 과연 資本主義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리고 產業化過程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정신적인 의식구조와 가치관은 어떠한 것인가를 정리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西歐的인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으나 흔히 歷史的으로近代化(modernization)라고 할때에 西歐化(Europeanization)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이유의 하나로, 西歐의 近代化過程이 政治·經濟·社會·文化·宗教·科學의 모든 측면에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歷史的事實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近代化는 어느 특정부문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分野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靜態的이고 停滯된 中世社會로부터 動的인 前進을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動的인 前進은 무한한 발전이 약속된 前進인 것이다. 그것은 르네상스, 宗教改革, 地理上의 發見, 產業革命, 市民革命으로 연결되는 과정속에서 「世界와 人間의 再發見」이요, 무한한 進步를 약속하는 動的인 變化를 추구하는 歷史意識속에서 전개되었다. 近世이후의 세계는 「잠자는 세계」가 아니라 「움직이는 세계」이며 단순한 반복인 「動物의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進步하는 「人間의 세계」인 것이다. 그로부터 이제 宇宙를 정복하고 눈부신 科學과 技術의 발전과정을 겪으면서 政治와 經濟의 지도원리도 형성되었다. 이것은 東西兩陣營에 있어서나 제3세계에 있어서나 제자리에 멈추어서 틀에 박힌, 반복만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動的인 變화의 연속으로 진전되어왔다. 그런데 東洋社會의 儒教文化나 단군신화나 또는 샤마니즘에 있어서나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의식구조와 가치관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進步하는 近代化의 정신이 아직 자리를 잡지못하고 있다.

유럽에 있어서도 中世의 文化와 宗教에서는 마찬가지였으나 르네상스와 宗教改革이 마침내 動的인 近代社會에 필요한 意識構造를 뿌리내리게 하였던 것이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한편으로 產業化過程을 과거의 유럽보다도 더욱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면서 의식구조에 있어서는 停滯的인 것을 고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필요하면 유교문화이던 불교문화이던 또는 독자적 인 文化이던 그것이 무한한 進步와 共存할 수 있도록 改革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文化의 개혁으로는 이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는 이미 共產主義國家들, 특히 毛澤東시대의 中共의 文化革命에서 보여 주었다. 서양의 어떤 전문가는 그 文化革命이 中共社會를 적어도 30년은 後退 또는 停滯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틀에 박힌 文化의 개조, 강요된 文化는 進步를 약속하는 動態的인 것이 아니고 오직 두개의 靜態인 比較靜態에 불과하다. 共產化產業의 文化와 共產化以後의 文化가 크게 달라졌을 뿐 그것이 停滯된 것임은 과거나 현재나 다름이 없다.

動態的인 文化, 意識 그것은 조건이 없이 모든 人間이, 즉 國民이 자신의 未來를 창조하며 개척해나가면서 歷史的共同體로서의 社會意識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것이라야 한다. 過去는 文化的 뿌리일뿐, 그것이 열매가 아니다. 오직 文化的 열매는 未來일 뿐이다. 무한한 未來에의 발전에 적응하는 文化的 창조를 뒤받침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가치관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아스(W.S. Haas)는 18~19세기의 아시아의 傳統文化가 같은 시기에 西歐文化의 발전과 때를 같이하여 내적으로 봉괴된 이유는 傳統文化 자체가 갖고 있는 沈滯性에 있는 것이 아니라, 外國의 西歐文化에 접촉할 때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逆轉된 沈滯의 과정을 밟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Haas, 1956 : 37~61). 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 靜態的인 文化, 비록 발전해도 革命的, 斷續的인 比較靜態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東洋文化가 動態的인 文化, 連續的인 進步를 받아들이는 東洋文化에 부닥쳤을때에 스스로 따라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그러한 東洋文化는 없어진 것 이 아니라 앉은뱅이의 상태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韓國인이 멋떳한 韓國人, 함께 사는 보람과 나라와 겨레의 나아갈 길을 위해 필요한 價值觀은 무한한 進步가 약속된 價值觀이요, 그

리한 歷史의 개척에 참여하는 價值觀이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우선 나 자신이 바르게, 그리고 이웃과 사회에서 다 함께 살면서, 우리나라와 民族에게 주어진 歷史的共同運命을 개척하며, 한걸음 나가가 人類와 世界의 歷史에 참여하며 앞장서는 데 끊임없이 進步하는 價值觀을 확립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金東雲

1985, 9 中共의 實事求是, 한국일보.

金東一

1985, 3 社會意識, (上, 下), 한국일보.

라이샤워

1984, 1 한국과 일본, 동아일보.

메이슨, 金滿堤 外 3人

1984 韓國經濟社會의 近代化, 韓國開發研究院.

朴齊家

北學義, 道江南浙江商船業義

朴齊家

北學義, 內編.

柳壽垣

迂書, (韓榮國澤, 實學研究入內, 歷史學會編)

사회발전연구소

1985 오늘의 한국농촌,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소식, 제1권제8호, 8월

丁若鏞

與西堂 全書, 第一集 券11 詩文集 技藝論.

한국인간개발원

1985 青年意識構造와 偏親家庭, 인간개발, 9월.

한국일보

1985. 10. 3. 美國式교육, 慮善을 본다.

Friedman, Milton and Rose

1980 *Free to Choose*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Haas, W.S.,

1956 *The Destiny of the Mind; East and West*

Krauss, Melvyn B.

1983 *Development Without Aid*

Weber, Max

1904 "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licher und sozialpolitischer Erkenntnis.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Bd. X.

Weber, Max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